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 출장 개요

□ 출장목적

o 미국 공공정책분석관리학회(APPAM) 제48차 연차학술대회 참석 및 SOCX 활용 연구성과 공유, 미국 전문가 자문을 통한 ALMP·EITC·장애급여 지출 분류 쟁점 검토

□ 과제명

o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(수탁26-002-01, 보건복지부)

□ 출장기간

o 2026.11.03(화) ~ 2026.11.09(월), 5박 7일

□ 출장국가(도시)

o 미국(보스턴)

□ 출장자

o 현옥주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원)

□ 일정요약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11.03(화)	미국(보스턴)	-	-	출국(인천→보스턴)
11.04(수)	미국(보스턴)	미국(보스턴) Boston Marriott Copley Place	Eunha Kim	자문: 저소득 부모 고용지원·ALMP
11.05(목)	미국(보스턴)	미국(보스턴) Boston Marriott Copley Place	Jiwan Lee	자문: EITC 체계 및 ALMP 지출
11.06(금)	미국(보스턴)	미국(보스턴) Boston Marriott Copley Place	Hyunju Kim	자문: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지출
11.07(토)	미국(보스턴)	미국(보스턴) Boston Marriott Copley Place	-	학회 참석 및 연구성과 발표
11.08(일)	미국(보스턴)	-	-	귀국(보스턴→인천)
11.09(월)	한국(인천)	-	-	인천 도착

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2 출장 주요내용

①	Eunha Kim 자문: 저소득 부모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ALMP 지출 분류
일 시	11.04(수)
장 소	미국 보스턴
참석자	Eunha Kim(Columbia University 빈곤·사회정책센터), 현옥주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□ 면담자 소개

○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빈곤·사회정책센터(Center on Poverty and Social Policy, CPSP) 소속 연구원

- 가족·아동 복지, 부모됨과 일-가정 양립, 일-가족 정책을 주요 연구분야로 하며,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이 가구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친 영향 등 CPSP 연구에 참여
- CPSP는 미국의 월별 빈곤율 추계, 아동세액공제(CTC)·EITC·보육 등 소득보장 및 가족정책의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대표적 빈곤정책 연구기관임

□ 주요 논의 내용

○ 미국 저소득 부모 대상 고용지원 체계

- TANF(빈곤가족 한시지원)의 근로활동(work activities) 요건과 연계된 취업알선·직업훈련·보조금 고용, SNAP 고용·훈련(E&T) 프로그램, WIOA 기반 American Job Center 등 연방-주 재원이 혼재된 다층적 전달체계 구조를 공유
- 주(州)별로 프로그램 설계와 재원 배분이 상이하여 프로그램 단위 지출의 일관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미국 내 지출 통계의 주요 한계로 지적됨

○ OECD 노동시장정책(LMP) 분류 기준 적용 쟁점

- 고용서비스(범주 1), 직업훈련(범주 2), 고용장려(범주 4), 직접일자리 창출(범주 6) 등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(실업자·취업취약계층)에 따라 ALMP로 계상

○ 미국의 Child care service 관련 쟁점

- 뉴욕주에서는 가구에서 지불하는 Child care 비용을 보전하고자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, eligibility rule에 따라 수급 가구 특성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
- 개별 프로그램 수급자와 다중 프로그램 수급자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child care landscape을 구상하고 있음

□ 시사점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(구직촉진수당+취업지원서비스), 자활근로 등 복합 프로그램은 급여 구성요소별로 ALMP·실업(소득보장)·가족 영역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

○ 지방자치단체 자체 고용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예산 외 지출의 포착 범위 점검 필요

②	Jiwan Lee 자문: EITC 체계 및 적극적노동시장지출
일 시	11.05(목)
장 소	미국 보스턴
참석자	Jiwan Lee(Brown University 인구연구·훈련센터), 현옥주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□ 면담자 소개

○ 미국 브라운대학교 인구연구·훈련센터(Population Studies and Training Center, PSTC) 박사후연구원, 컬럼비아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
- 주 단위 사회안전망 투자가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아동의 교육성과에 미친 영향(코로나 19 전후)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
- 2021년 무자녀 청년층 대상 EITC 한시 확대가 주거·식품 불안정 등 물질적 어려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(NBER Working Paper No.32571, 2024, 공저) 등 EITC·사회안전망 효과 연구 수행

□ 주요 논의 내용

○ 미국 EITC 제도 구조
- 근로소득 구간별 점증-평탄-점감 구조, 자녀 수에 따른 급여 차등, 환급형(refundable) 세액공제 방식, 연방 EITC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주정부 EITC 운영 현황 공유
-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(ARPA)에 따른 무자녀 EITC 및 자녀세액공제(CTC) 한시 확대 경험과 종료 이후의 영향 논의

○ SOCX 계상 쟁점
- EITC는 근로를 조건으로 하나 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근로연계 소득보장(in-work benefit)으로 분류

○ CTC 효과성에 대한 논의
- 미국에서 코로나 19 전후로 CTC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였는데, 이로 인하여 아동의 성적 증진, 물질적 결핍 완화, 백신 접종률 증가 등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음
-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, 특정 주에서는 CTC를 보완해주는 자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.

□ 시사점

○ 근로·자녀장려금의 SOCX 기능 영역 배분과 현금급여/조세지출 구분 기준을 OECD 매뉴얼 및 미국 등 주요국 보고 사례와 대조하여 일관성 점검 필요

○ ALMP 지출 국제비교 시 근로장려금 등 근로연계 급여가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여, 한국 노동시장정책 지출 해석 시 보완지표로 함께 제시하는 방안 검토

③	Hyunju Kim 자문: 장애인 사회보장급여의 지출 통계
일 시	11.06(금)
장 소	미국 보스턴
참석자	Hyunju Kim(University of New Hampshire 장애연구소), 현옥주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□ **면담자 소개**

○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장애연구소(Institute on Disability, IOD) Project Director, 조지메이슨대학교 공공정책분석 박사

- 사회보장 장애 프로그램(SSDI·SSI)의 정량 평가, 장애인의 경제적 이동성과 재정적 안정, 노동경제 및 일-가족 정책을 연구하며, 장애 성인의 SNAP 참여와 식품보장에 관한 연구(2025) 등 수행

□ **주요 논의 내용**

○ 미국 장애 관련 사회보장급여 구조와 SOCX 영역 배분

- SSDI(사회보험), SSI(공공부조), 보훈 장애보상, 주정부 보충급여, 메디케이드 재가·지역사회서비스(HCBS) 등 제도별 지출을 근로무능력 관련(incapacity), 보건, 노령 영역으로 배분하는 쟁점 논의
- SSDI 수급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으로 전환되므로, 장애 지출과 노령 지출의 경계를 연령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 검토

○ 장애인 고용지원(직업재활, 지원고용 등)은 LMP 범주 5(보호·지원고용 및 재활)로 ALMP에 계상하고, 소득보장급여는 근로무능력 관련 영역으로 구분하는 기준 확인

○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논의

-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 소득 및 자산 조사를 실시 후, 자격을 판단하여 지원하는 직권주의로 변환 중임
- 이는 SSI를 재신청할 경우,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,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한시적으로 운행되고 있음
- application process 폐지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

□ **시사점**

○ 장애 관련 지출의 영역 간(근로무능력·노령·보건·ALMP) 경계 기준 정비,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 지출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분류 일관성 점검 필요

○ 지출 통계와 수급자 통계를 연계하여 수급자 1인당 급여 수준 등 보조지표 개발 검토

④	APPAM 제48차 학술대회 발표
일 시	11.07(토)
장 소	미국 보스턴(Boston Marriott Copley Place)
참석자	현옥주(한국보건사회연구원) 외 학회 참석자

○ 발표 제목: Job Quality, Labor Market Policy,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's Second Baby Boomers

○ 발표 형식: 포스터 발표(영문)

○ 연구 배경 및 목적

- 2차 베이비부머(1964~1974년생)가 법정 정년(60세)에 도달하기 시작하였으며, 생애과정 관점에서 이 시기의 웰빙은 그간 종사해 온 일자리의 질에 좌우됨
- 일자리 질은 다차원적이며 취업 자체가 모든 차원의 질을 보장하지 않으나,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비교하여 일자리의 어떤 차원이 웰빙에 중요한지 불분명
- 적극적노동시장정책(ALMP)과 실업 지출은 불안정 고용과 실직의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정도를 좌우하며, 한국은 2020년 이후 두 지출을 크게 확대하였으나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웰빙과의 관계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음

○ 분석 자료 및 방법

- 자료: 한국노동패널(KLIPS) 10~26차(2007~2023년, 17개 연도), 2차 베이비부머 1,091명
- 일자리 질: 고용안정성, 소득안정성, 근로시간 규칙성, 사회보험 가입의 4개 차원을 각각 0(미취업), 1(불안정/미가입), 2(안정/가입)의 순서형 변수로 구성
-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(5점 척도)이며, 연도 수준 정책변수로 1인당 ALMP 지출 및 실업 지출(OECD SOCX, 불변가격·PPP 기준, 시차 적용)과 고용률(15~64세)을 투입
- 차원별로 개인 수준 무작위 절편을 포함한 혼합효과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고, 성별, 연령, 교육수준, 혼인상태, 지역, 주관적 건강을 통제

○ 주요 결과

- 기술통계상 불안정 일자리 종사자의 삶의 만족도는 4개 차원 모두에서 미취업자보다 낮게 나타남
- 모형 추정 결과, 4개 차원 모두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미취업 대비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음(승산비 1.82~2.12, $p<.001$). 불안정 일자리는 고용안정성 차원에서만 유의하였고(1.35, $p<.001$), 소득안정성(1.21)·사회보험(1.17)은 경계적 유의($p<.1$), 근로시간 규칙성(0.95)은 유의하지 않음
- 1인당 실업 지출은 모든 모형에서 삶의 만족도와 부(-)의 관계를 보였고(승산비 0.9997, $p<.05$), ALMP 지출은 정(+)의 방향이나 대체로 유의하지 않음
- 코로나19 이후 실업 지출이 급증한 시기에 평균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였으며, 꾸준히 가하던 ALMP 지출도 2023년에 감소

○ 정책적 함의
-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, 근로시간의 규칙성, 사회적 보호 수준을 정책 목표로 삼을 필요
-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면 소득이 변동하고 일상과 가족·개인 시간의 계획이 어려워져, 부모·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중년층에게 부담이 큼. 재취업·알선 프로그램 등에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로시간을 일자리 질의 요건으로 반영할 필요
- 사회보험 미가입 시 질병·실직이 곧바로 소득 상실로 이어지고 노후 보장도 약화되므로, 사업장 가입 확대와 가입의무 이행 강화를 통해 불안정 일자리 중년 근로자의 적용을 넓히는 것이 우선 과제
- ALMP 지출은 중년층을 안정적이고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며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투자될 필요

○ SOCX 과제와의 연계: SOCX의 ALMP·실업 영역 지출을 개인 단위 패널자료와 결합하여 지출 수준과 개인 웰빙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로,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정책 분석 활용 가능성을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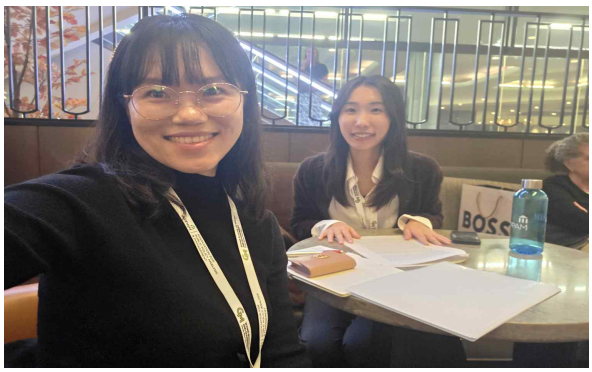
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, 면담자 명함 등

①	Eunha Kim 자문 외 학회 참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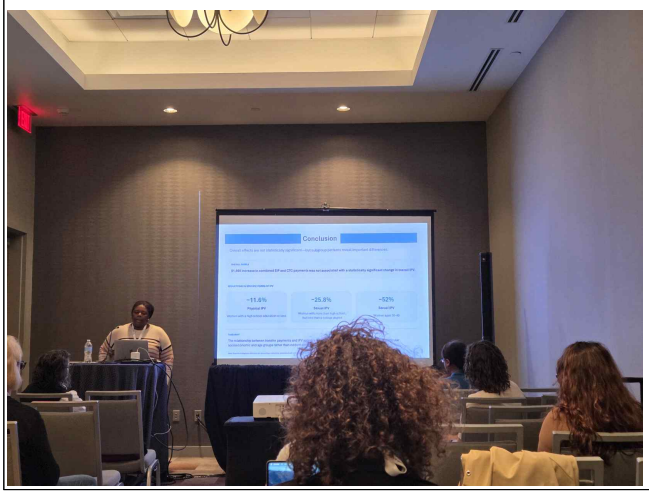




②	Jiwan Lee 자문외 학회 참석









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③	Hyunju Kim 자문 및 학회 참석









④	APPAM 제48차 학술대회 발표 및 교류

